

EEJ! SCENARIO

A story about Gowol City where peace and crime coexist

S#1-1 전장/튜토리얼

테러 집단이 점령한 마을. 중국계로 추정되는 병사 4명이 방에서 마작을 치고 있다.
한 병사가 자신의 패를 바라보며 침을 삼킨다. 구련보등 화료를 앞두고 리치를 건 상태.
건너편 상대가 기다리던 패를 내자 만면에 미소가 번진다.
그때, 병사의 관자놀이를 따라 붉은 레이저 포인트가 올라온다.

병사A : 론!

탕!

총성과 함께 창문의 커튼 틈새로 날라온 총알이 병사의 머리를 관통한다. 동요하는 병사들.
총성이 난 곳을 향해 몰려드는 테러 집단의 병사들. 표정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저격수가 있었던 건물의 문을 열어서 총을 난사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가장 겁에 질린 병사의 뒤를 노린다.
매끄러운 솜씨로 나이프를 다뤄 자신의 죽음을 알기도 전에 목숨을 거두는 괴한.
이 특수부대 출신 괴한의 이름은 권시현으로, 용병들 사이에서는 손 건이라고 불린다.

병사들 : 무슨... / 누구냐!

각자의 언어로 외치는 병사들. 그 혼란스러운 아우성 사이에서 권시현은 임전 태세를 취한다.

(튜토리얼 모드 돌입)

지형지물과 다양한 무기로 병사들을 처리하는 권시현.

움직이지 않는 적들을 둘러보고는, 확인 사살까지 마무리한다. 이후 무전을 취하는 권시현.

권시현 : 여기는 손. 전원 처리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 : 역시 대단하군. 고생 많았다. 이제 복귀하도록. 재정비한 뒤 잔당들을 쓸어버리
자고.

권시현 : 아니, 그러면 늦잖아. 땀 들었다간 놈들이 도망칠걸.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 : 그게 무슨 소리지?

권시현 : (처리한 병사의 무기를 주워 들며) 평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무전기에서 뭐라고 소리가 들렸지만, 권시현은 송신을 끊어버린다.

주운 무기를 쳐다보더니 다시 땅에 던져버린다.

권시현 : 더 강한 평화가 필요해.

거점을 옮기려는 병사를 습격하는 권시현.

다른 병사가 괴성을 지르며 화염방사기를 가져온다.

정확한 타이밍에 나이프를 던지는 권시현.

화염방사기를 쏘보기도 전에 권시현이 던진 나이프가 이마에 적중한다.

적이 남긴 화염방사기를 들어올리더니, 미소짓는 권시현.

화염방사기를 들고 움직이며 적의 거점을 하나씩 처리한다.

권시현의 눈동자에 이글거리는 도시의 잔상이 비친다. 지긋이 눈을 감는 권시현.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 : ...뭐 하는 거야. 거점인지 제대로 확인은 한 거야?

권시현 : 후환을 없애야 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 : 몰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 저들은 네 성질을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권시현 :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 : 넌 미치광이야!

권시현 : (나는 분명 평화를 지켰다. 뭐가 문제인 거지...?)

??? : 의심하지 마!

무전기 너머에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권시현을 훈련한 아버지 권철의 목소리다.

권철 : 내가 말했잖나.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행동에 의미 같은 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말이 끝나기 전에 권시현은 눈을 뜬다. 그는 비행기 안에 있다.

창밖으로 미니어처 같은 고월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S#1-2 고월시의 식당/ 시네마틱 영상

고월시의 호화로운 식당에 경찰 이지태가 들어선다.

방금 계산을 하고 나간 젊은 남녀의 테이블에 핸드백이 있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전해준다.

이지태 : 실례합니다. 가방을 두고 가셨더군요.

손님A : 앗, 감사합니다!

호감가는 미소로 답례 인사를 하고 다시 가게로 들어가는 이지태. 가게 직원이 웃으며 그를 반긴다.

직원A : 감사합니다, 손님.

이지태 : 월요, 당연한 일이죠.

식당 안쪽으로 경기도 경찰청장이 앉아 있다. 그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는 이지태.

청장 : 됐어, 됐어. 그나저나 자네는 여전히 점수 딸 기회는 놓치지 않을구만.

이지태 : 하하,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청장 : 웃기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지. ...그게 사실인가?

이지태 : 네, 권시현이 고월시로 돌아왔습니다.

권시현과 어떤 남자가 만나고 있는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는 이지태의 장면이 지나간다.

그 위로 들리는 이지태의 목소리.

이지태 : 이전부터 권시현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고월연합당의 조직원인 조다정을 감시한 결과, 3일 전에 그가 권시현과 만난 걸 확인했습니다.

청장에게 핸드폰을 건내는 이지태. 화면에는 권시현의 모습이 찍혀 있다.

청장 : (사진을 바라보며) 고월연합당이라... 여전히 마음에 안드는 이름이야. 그 같잖은 이름 때문에 여기 시장님 입지가 얼마나 좁아졌는지 알아?

이지태 : 갑이라는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청장 : 그건 마음에 들겠어? ...대체 어떻게 줄여야 그렇게 되는 거야?

이지태 : 고월 어소시에이션 파티. 지 에이 피.

청장 : 아, 마음에 안 들어.

청장 : (핸드폰을 돌려주며) 하아, 하여간 유치한 놈들이야. 하지만 그 유치한 양아치들이 고월시를 번기로 만들지도 어언 수 십 년째지. 근데 그 번기에 앉은 놈이 사라졌어.

이지태 : 권철 말이군요.

청장 : 그래, 시현이 아빠. 놈이 사라지고 연합당은 주먹 쓰는 양아치 훈구파와 돈 많은 양아치 성록파로 나뉘었지. 점조직이었던 놈들이 편가르고 싸우는 덕에 오히려 파악하기가 쉬어졌고 말이야.

이지태 : 그래서 제가 권시현이 전역했다는 소문을 파악하고, 그를 이용해 놈들을 제압할 작전을 제안했죠. 솔직히 고월시로 돌아올지 안 올지는 도박이었지만 말이죠.

청장 : ...나는 고월시의 문제를 알고도 놈들을 어떻게 처리할 지 몰라 속만 썩이고 있었지. 네가 새로 들어온 소위 엘리트라는 말에도 고월시 출신이란 것만으로 괜히 무시했고 말이야. 하지만 너는 오히려 놈들을 잡아들이겠다고 호언장담했어. 그게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군. ...고생많았다.

이지태 : ...네, EEJ 프로젝트.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직원A : 손님들, 죄송하지만...

이지태 : 네?

직원A : 술슬 주문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대에는 다른 손님들도 많아서요.

청장 : 그것도 그렇군. 일단은 먹으려고 온거니까.

이지태 : 아, 그렇네요. 드시고 싶으신 음식이 있으실까요? 이 식당은 스테이크와 양파스프가 특히 맛있습니다.

S#1-3 식당 앞 거리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는 이지태와 청장.

이지태 : 그럼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장 : 그래, 잘 부탁하네. 음, 저 녀석들은...

건너편 도로에서 8명 정도의 인원이 무리지어서 서성이고 있다.

그중에는 검은 복면을 쓴 사람도 몇 명 보인다.

이지태 : 저 복면을 보아하니 연합당 녀석들이네요. 저 복면 이제는 안하는줄 알았는데.

청장 : 그래 훈구파 녀석인 것 같군. 성록파 놈들은 적어도 저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으니까 말이야. 쓰읍. 저렇게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자기 거리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이지태 : ...청장님 잠시 차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지태는 청장의 자동차 뒷문을 열고 웃고 있다.

청장 : (차에 타며) 뭘 하려는 건가?

이지태 : 청장님이 친히 고월시까지 오셨는데 좋은 인상을 남겨야죠.

차문을 닫고 연합당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가는 이지태.

가까이 다가가자 연합당 측도 이지태의 존재를 눈치챈다.

훈구파말단A : 뭐야, 넌?

이지태 : 어이, 너희들. 그 복면을 보아하니 연합당 녀석들이네. 같은데.

서로 둘러보는 연합당. 일제히 웃기 시작한다.

훈구파말단A : 네? 연합당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훈구파말단B : 저희가 무슨 정치하게 생겼나요?

이지태 : 모르는 척 하기는. (경찰증을 꺼내보이며) 경찰이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암전히 들어가. 내 손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이지태가 경찰이라는 걸 밝히자 술렁이는 연합당.

훈구파말단A : 경찰이라고..?

훈구파말단B : 거기에도 우리 친구 있지 않나?

훈구파말단C : 우리 친구야 없는 곳이 없지. 이 아저씨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지태 : (정색하며) 내가 너희들 같은 고월시의 쓰레기들하고 어울릴 거 같아? 친구 어쩌구 하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아작을 내주겠다.

이지태의 말에 히죽대던 연합당이 정색하고 그를 노려본다.

훈구파말단A : 이 자식이 우릴 어떻게 한다고? (눈짓으로 다른 동료한테 신호를 보낸다)

이지태를 애워싸는 훈구파. 곧 그를 뒤에서 붙잡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다.

훈구파말단A : 다시 한 번 말해봐.

수차례 얻어맞자 바닥에 주저 앉는 이지태.

웃으며 물러나는 연합당. 기회를 엿본 이지태는 순식간에 일어나서 후미의 연합당 직원한테 엮어치기를 가한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바닥에 꽃히는 조직원.

이지태 : 이제부터 정당방위다.

주변의 무기를 활용해서 전투를 하던 권시현과 달리 유도나 복싱 등 다양한 격투기로 타격과 그래플링을 구사하는 이지태.

능숙한 솜씨로 조직원을 하나씩 제압한다.

당황한 조직원 하나가 나이프를 꺼내들어 휘두른다.

공격을 피한 뒤 타이밍에 맞게 조직원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구속하는 이지태.

전원을 제압하는데 성공하고, 핸드폰을 들어 동료 경찰에게 연락한다.

이지태 : 나다. 여기 OO 레스토랑 앞인데, 시비 거는 녀석들이 있길래 잠깐 모셔왔다. ...그래, 아직도 덤비는 녀석이 있더군. 아무튼 이 녀석들 연행 좀 부탁할게.

통화를 마치고 청장의 차량으로 다가오는 이지태.

이지태 : 이런,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녀석들이 말을 안 들어서요. 하여간 양아치놈들...

청장 : 자네가 그러고도 경찰인가?

이지태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청장 : 됐어. 상대가 상대니까 이번엔 넘어가지. 미친 놈을 상대하는 데는 미친 놈이 제격일지도 모르겠군.

이지태 : (90도로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그늘진 이지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S#1-4 권시현의 집 앞

이지태가 청장을 만나기 며칠 전.

고월시의 집에 도착한 권시현.

오랫동안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어 방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다.

권시현 : (역시 아버지는 안 계시군.)

책상 위의 빛이 번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족 사진과 벽에 걸린 도끼, 줄줄이 쌓여있는 먼지 덮인 화염병 등을 둘러본다.

소파에 드러누워서 생각에 잠기는 권시현.
그 때,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권시현 : (누구지?)
??? : 형! 안에 있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문으로 다가가는 권시현.
문을 여니, 아버지와 의절하기 전 어린 시절에 알고 지냈던 조다정이 있었다.
권시현은 인상을 찌푸린다.

조다정 : 오오...! 시현이 형. 진짜로 있었구나! 57번째만이네!

권시현 : 너였냐. 무슨 말이지. 그 57번째라는 건.

조다정 : (방에 들어가며) 형 전역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매일마다 여기 들러서 왔는지 확인해봤거든! 오늘이 57일째란 뜻이었지. 형이 무슨 용병됐다는 소문듣고 완전 팬이 됐거든. 미치광이 용병, 손 건이 형이잖아!

권시현 : ...일은 안 하나?

조다정 : (소파에 드러누우며) 나 아직 학생. 만날 사람도 없고. (캔음료를 따서 마시며) 야, 벽에 저 도끼. 오랜만에 보네. 이 방의 무기들도 여전하구나!

권시현 : 전부 평화의 상징이지. 너도 평화를 원하면 내 소파에서 뭐 먹지 마.

조다정 : 마시는 거거든. 형이 말하는 평화란 게 이렇게 야박한 거였어?

권시현 : 평화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

조다정 : (소파에서 일어나며) 평화 얘기 하니까 옛날 생각나네. 형, 오랜만에 사냥하자.

권시현 : 사냥?

조다정 : 그래, 형 떠나고도 나는 계속 연합당을 지키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 요즘 분위기가 뒤숭숭해. 지들끼리 싸운다고 소문이 싹 퍼진거야. 그러다보니 우리를 따라하고 맛먹으려는 길거리 양아치들이 늘었어. 이 녀석들 싹을 뽑아버리자. ...하아, 이게 다 성록파 놈들 때문이야.

권시현 : 고월시에 경찰은 없는 건가?

조다정 : (의아해하며) 있지? 그래서 이 짓이 더 재밌는 거고! ...그나저나 형 아까부터 빼기만 하는 거 같은데, 감을 잃은 건 아니겠지?

권시현 : (웃으면서) 좋아. 그렇게 말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다. 술슬 패주고 싶었거든.

조다정 : 농담도. 좋아, 서로 실력 확인 좀 해볼까. 나도 놀고만 있지는 않았거든. 저기 걸려있는 평화의 상징도 써도 좋아.

조다정은 나이프를 활용한 무기술과 기계체조를 통해 익힌 민첩한 움직임으로 응전한다.

마치 권시현과 이지태를 적절히 섞은 듯한 전투 스타일이다.

권시현에게 몇 차례 공격을 시도하지만 큰 데미지를 못 준 반면, 권시현의 주먹은 조다정의 몸통에 적 중한다.

거리를 두고 나이프를 던져 견제하는 조다정.

권시현은 주변의 모든 물건을 무기로 다루는 능력을 활용해, 타이밍에 맞춰 접시 등을 던진다.

나이프를 모두 떨어뜨린 뒤, 벽에 걸린 도끼를 빼들며 남다정을 향해 내던진다.

쿵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꽂히는 도끼. 도끼를 뺀히 쳐다보던 조다정은 웃음을 터뜨린다.

조다정 : 우왓, 하하하. 역시 형이야. 자기 집이어도 봐주질 않는구나!

권시현 : 평화에는 책임이...

조다정 : 아아, 알았어. 이제야 즐거워 보이는군.

권시현 : 내가 즐거워 보인다고?

조다정 : 그렇다니까! 서로 확인도 했으니 슬슬 사냥하러 나가자. 옛날에 어릴 때 형 아버지도 한 훈련이잖아?

권시현 : 아버지 얘기 하지마. ...그보다 아버지 소식 들은 거 없나.

조다정 : ? 없어. 요즘 그 분 뭐하시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걸.

권시현 : 좋아, 결심했다.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네가 말한 양아치들은 물론, 연합당 놈들도 싹 쓸어버려서 여기 평화를 지키면 그 인간도 모습을 드러내겠지.

조다정 : 아하하하, 그건 좀 웃겼다.

조다정이 동료가 되었다.

S#1-5 고월시 마을 거리1

집에서 나오는 권시현과 조다정.

권시현은 동네 거리를 거닐면서 조다정에게 고월연합당의 현황을 전해 듣는다.

권시현 : 아까 말한 성록파란 게 그 고상한 놈들인건가.

조다정 : 그렇다니까. 연합당의 본질은 원래 바로 행동하는 폭력에 있어. 행동으로 저항하고, 추락한 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악으로부터 지역을 수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런데 뒤에서 계산기나 두드리는 놈들이 자꾸 맛먹으려 든다니까. 돈맛을 보고 변절한 놈들도 많아. 전부 쓸어버려야 해. 사업이라면 우리 훈구파도 하는 데 말이지.

둘의 시야에 담배를 피며 떠드는 학생들이 들어온다.

조다정 : (싱글벙글하며) 저런 사회의 쓰레기들도 처단해야겠지.

가볍게 승리하는 권시현과 조다정.

이후로도 학교 일진부터 신흥 폭력 조직의 일원까지 다양하게 처리한다.

동시에 권시현은 오랜만에 돌아온 고월시의 마을을 구경한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로를 달래고, 양아치 처단을 계속 하는 둘.

권시현은 점차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에 적응해간다.

옛날 생각이 나는지 서서히 즐거워지는 권시현.

며칠 후, 현재. 다시 사냥을 나온 권시현과 조다정.

그러던 중 유튜브 촬영을 하는 일당이 조다정의 시야에 들어온다.

조다정 : 형, 보여? 저 촬영하는 녀석들 말이야.

권시현 : 아아.

조다정 : 고월시의 팝업스토어나 행사 관련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인데, 알고 보니 성록파의 꼬나풀이더라고. 그 장사꾼들이 사업하는 거 홍보하려고 만든 채널인 거지.

유튜버A : ...지금까지 고월시의 가장 핫한 맛집 알아보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조다정 : 저게 맞냐고. 가서 놈들이 잊어버린 행동하는 폭력의 가치를 일깨워주자.

권시현 : 네가 멋대로 결정하는 건 마음에 안 들지만. 성록파란 놈들이 뭐하는 놈인지 알아볼까.

유튜버와 촬영팀을 처리하는 권시현과 조다정.

카메라를 든 촬영감독과 마이크를 든 음향감독은 성록파의 조직원이었다.

성록파 조직원들이 시간을 버는 사이 성록파 간부에게 연락하는 유튜버A.

쓰러진 유튜버와 권시현 사이로 달려드는 커다란 승합차.

차에서 성록파의 조직원들과 간부가 내린다.

간부는 다른 적들보다 덩치가 크다.

성록파간부A : 연락이 와서 재촬영이라도 해야 하나 했더니 훈구파의 떨거지들이었군. ...하아, 머리가 텅텅 빈 너희는 우리가 싸움을 못한다고 멋대로 착각한단 말이지. 자자, 감독님. 촬영합시다.

쓰러졌던 카메라맨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촬영 준비를 한다.

성록파간부가 포즈를 취하자, 단련된 몸이 양복 위로도 존재감을 드러낸다.

성록파간부A : 이번 콘텐츠는 길거리 양아치들을 흡수 패주는 겁니다. ...너희는 평생 이해 못하겠지만, 태생부터 엘리트였던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엘리트다. 이 주먹은 복싱으로 단련되었고, 하체도 꾸준한 보디빌딩으로 단련되었지. 물론 뛰어난 사업가답게, 머리도 단련했고 말이야. 네까짓 놈들이 상대할 수 있겠냐!

간부와와의 전투에 돌입하는 권시현과 조다정.

조다정은 현란한 동작으로 간부의 부하들을 하나씩 처리한다.

강자를 알아본 간부는 곧장 권시현을 향해 다가간다.

능숙한 복싱으로 권시현을 몰아붙이는 간부.

권시현은 근처의 사물을 들어 충격을 흡수한 뒤 군용 무술을 통해 맞붙는다.

보다 전투에 익숙한 권시현의 쪽으로 전황이 기울고, 간부는 복부에 발차기를 정통으로 허용한다.

조다정 쪽 상황도 이미 정리가 되자,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간부는 물러나려 한다.

권시현은 틈을 내주지 않고, 승리에 도취해 싱글벙글하는 조다정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다.

조다정을 집어던지는 일종의 합동기로 간부를 제압하는 데에 성공한다.

S#1-6 고월시 인적 드문 곳

전투가 끝나고 몸을 터는 조다정.

조다정 : 시현이 형이 집어던질 때는 살짝 열 받았지만, 결과가 괜찮으니까 넘어가지.

바닥에 주저앉은 간부를 내려다보며 말한다.

조다정 : 어떻게 해야 본보기로 남을 까나.

성록파간부A : 우쭐대지 마라. 너희는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훈구파의 방법만 가지고서는 연합당이 끝나는 건 시간 문제야. 곧 우리가 연합당을 먹을 때가 오면 너희도 싫어도 알게...

간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이프를 내던지는 조다정.
칼날이 간부의 손에 꽂힌다.

성록파간부A : 크아아앗!

조다정 : 이제 당분간 복싱은 못하겠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지?

다시 한번 날라가는 조다정의 나이프.
이번에는 허벅지에 찔린다. 비명을 지르는 간부.

조다정 : 헬스도 쉬어야겠고. 그러게 칼로 한 번 찌르면 끝나는 걸 무슨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야. 자, 다
음은 그 똥똥한 머리통인데...

나이프를 던질 듯 말 듯 한 상태에서 머뭇거린다.

조다정 : 자, 머리를 노려야 하나 저 헛바닥을 노려야 하나 고민되는 걸...

그때 테이저건이 날라와 조다정의 다리에 꽂힌다.

조다정 : 아그그극...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에 맥을 못 추고 기절하는 조다정.
테이저건을 쏜 것은 이지태였다.

이지태 : 아주 미친 놈들이 활개를 치는구나. 고월시 골목에는 예전부터 쓰레기들이 우글거렸지만 조다
정 년 그중에서도 독보적이었어.

조다정이 기절한 것을 확인하고 간부에게 다가가는 이지태.

이지태 : 당신 같은 분이 강패들 때문에 이런 심한 꼴을 겪다니, 고월시 경찰로서 정말 면목이 없네요.
구급차가 왔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성록파간부A : 네? 앗, 네, 넵! 으아아악, 아파 죽겠네! 저놈들 꼭 체포해주세요!

이지태 : 넵, 알겠습니다.

권시현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이지태.

이지태 : ...그렇다는데요? 권시현씨.

권시현 : 나를 알고 있나? 경찰.

이지태 : (헛웃음을 터뜨리며) 안 지 좀 됐죠.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좀 있어서 말입니다. 저기 기
절한 분을 쫓아다니다 보면 당신하고 이어질 줄 알았죠.

권시현 : (조다정을 쳐다보고는) 멍청한 놈.

이지태 : 게다가 요 며칠 당신들이 난리를 쳐온 덕분에 더더욱 찾기 편했고요. 자, 그래서 어떡할까요?
당신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권시현 : 한 번 시험해보면 알 수 있잖아. (전투 태세를 취하는 권시현)

이지태 : 하아, 역시 이렇게 되네요. 하긴 저도 당신의 전투 능력은 글로만 접했으니... 나중에 일할 걸 생각하면 이쪽이 빠르겠네요.

전투에 임하는 권시현과 이지태.

이지태는 권시현의 역량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흘리는 유술 위주의 격투기를 사용한다.

몇 번을 합을 나누고 이를 눈치챈 권시현. 거기에 더불어 이지태가 상당한 실력자임을 깨닫는다.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이 보고 싶은 권시현은 이지태를 더욱 몰아붙인다.

이지태는 타이밍 맞게 플라잉 암바를 시도한다.

하지만 권시현은 괴력으로 관절기를 시도하는 이지태를 그대로 들어 올린다. 당황하는 이지태.

권시현은 그대로 이지태를 벽으로 향해 내던진다.

통증을 느낀 이지태는 더이상 방어적인 자세로는 권시현을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직감한다.

이지태가 자세를 고쳐 잡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권시현.

??? : 거기까지다! 짬새!

권시현, 이지태 : ???

훈구파말단A : 드디어 찾았다. 이 공갈 협박 경찰... 아주 여기저기서 같은 수작을 부리고 다녔던데 요즘.

이지태 : 무슨 오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현씨가 일으킨 난리에 이끌린 게 저만 있는 게 아닌 거 같네요.

훈구파말단B : 너한테 온 건데.

이지태 : (무시) 자, 갑작스럽지만 권시현씨. 첫 번째 미션입니다.

권시현 : 같이 팀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만.

권시현과 이지태는 팀을 이뤄 적들을 제압한다.

다시 한 번 나이프를 휘두르는 훈구파의 조직원.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던 이지태는 능숙하게 수갑을 채우고, 이어서 권시현이 뒤에서 달려들어 그대로 래리어트를 날리는 합동기를 쓴다.

겁에 질려 달아나는 훈구파의 조직원들.

훈구파말단A : 야, 야! 빨리 애들 챙겨!

훈구파말단B : (기절한 조다정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도 우리 편이었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훈구파말단A : 몰라! 일단 데려와!

순식간에 사라진 조직원들과 조다정.

권시현 :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건가?

이지태 : 뭐, 괜찮아요. 저 친구들도 억울한 게 있는 것도 사실이고. 조다정은... 언젠가 잡기야 하겠지만 당장은 저런 사람이라도 쓸 데가 있어서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선택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도중에 꿇겼기는 하지만... 실력 확인은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권시현 :

이지태 : 이대로 있으면 경찰들이 눈에 불을 키고 당신을 찾아 다닐 거예요. 오랜만에 온 고향에서 쫓기는 건 너무 서글프지 않나요. 지금까지 당신의 행적을 보니 고월연합당이 탐탁지 않다는 건 저하고 마찬가지로 인 것 같은데요.

권시현 : 말이 너무 많군.

이지태 : ...그러면...?

권시현 : ...흠, 나중에 천천히 무슨 작전인지 들어보도록 하지. 지금은 좀 조용히 하라고.

이지태 : (웃으며) 감사합니다.

동맹을 축하하듯 힘껏 악수를 하는 두 사람.

이지태 : (아까 싸울 때의 권시현의 모습... 영락없는 싸움 중독이다. 용병 시절에도 과도한 폭력성으로 악명이 높았었지. 고향으로 내려온 지금쯤 자기가 쓸 수 없는 무기였던 걸 깨닫고, 분명 공허할 거다. 나 하고 손을 잡은 것도 아마 그 때문일 것이야. 아버지의 조직이든 무엇이든 상관 없는 건가... 역시 이 인간은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쓰고 적당히 버리는 게 맞겠어.)

권시현 : (역시 고월시와 연합당 모두... 더 강한 평화가 필요해.)